

April 9, 2014

Novelis

에버캔™ 알루미늄캔 시트 상용화 제품 첫 출시

레드 해어 브루잉컴퍼니, 맥주 캔에 세계 최초로 재활용 원료 고함량 인증 획득한 알루미늄 사용

전 세계 알루미늄 압연·재활용 산업을 선도하는 기업인 노벨리스는 덴버에서 개최된 2014 CBC (Craft Brewers Conference)에서 레드 해어 브루잉 컴퍼니(Red Hare Brewing Company)가 *에버캔™*을 최초로 상용화한 제품을 출시할 예정이라고 오늘 발표했다. *에버캔™*은 노벨리스가 알루미늄캔용으로 개발한 알루미늄 판재로서 재활용 원료 비율을 높여 외부로부터 인증을 획득한 바 있다.

최소 90퍼센트의 재활용 원료 비율을 보증하는 노벨리스의 *에버캔* 판재를 포장 용기로 사용한 레드 해어 크래프트 맥주는 미국 남동부 지방의 주력 시장을 중심으로 2014년 5월부터 시판에 들어갈 예정이다.

필 마튼스 노벨리스 사장 겸 CEO는 “이번 신제품 출시는 재활용 원료 비율을 높여 세계 최초로 외부 인증을 획득한 알루미늄캔의 사업성을 증명한다”면서 “노벨리스는 레드 해어와의 협업을 통해 업계 최초로 본 제품을 납품하기 위한 안정된 공급망을 구축했으며 조만간 다른 음료제조업체들도 동참할 것이 분명한 선례를 구축했다”고 말했다.

로저 데이비스, 레드 해어 설립자 겸 CEO는 “노벨리스 *에버캔*은 레드 해어와 완벽한 조화를 이룬다”면서, “*에버캔*의 기반이 되는 무한순환형 재활용 프로세스에 대한 외부 인증을 통해 최선의 지속가능경영을 추구하는 회사의 의지를 한층 더 확고히 다질 수 있으며 *에버캔*은 레드 해어 브랜드의 이미지로도 자연스럽게 확장된다”고 말했다.

미국 내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마이크로브루어리 업체들 중 하나인 레드 해어 브루잉 컴퍼니는 자사에서 생산하는 최상품 맥주의 신선함을 보존하고 풍미를 향상시키면서도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한다는 경영철학의 일환으로 노벨리스 *에버캔*을 선택했다. 레드 해어는 마이크로브루어리 업계가 제품의 유통을 확대하고 휴대성을 추구하는 소비자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병에서 캔으로의 전환을 꾀하고 있는 전반적인 추세에 따라 조지아 주 업체로는 최초로 알루미늄캔을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전국적으로 미국 내 거의 모든 주에는 400여 곳에 달하는 크래프트 맥주 제조업체들이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현재 1,300종 이상의 제품이 캔에 담겨 판매되고 있다.

코넬대학교 S.J존슨 지속가능경영 명예교수이자 ESW (Enterprise for a Sustainable World)의 설립자이며 <새로운 자본주의가 온다(Capitalism at the Crossroads)>의 저자이기도 한 스투어트 L. 하트는 “노벨리스 *에버캔*은 지속가능 기술혁신을 대표하는 우수한 사례로서 음료 브랜드와 소매업계가 지속가능한 포장용기를 추구하는 추세를 뒷받침하게 될 것”이라면서, “이번 신제품 출시를 소비자들과 기업들이 무한순환형 알루미늄 재활용의 중요성을 깨닫고 직접 행동에 나서 재활용을 실천하도록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노벨리스 *에버캔*은 현재 전 세계 음료업체에 납품이 가능한 상태다. 북미, 유럽, 남미, 아시아에 위치한 노벨리스 생산시설들은 국제적으로 공인된 환경감사업체인 SCS (Scientific Certification Services)로부터 *에버캔* 생산 인증을 획득했다.

알루미늄 캔 재활용을 확대하려는 노벨리스의 노력은 2020년까지 전 세계 사업장을 대상으로 재활용 원료 함량을 80퍼센트까지 끌어올린다는 전사적인 [계획](#)의 핵심 요소다. 현재 알루미늄 재활용 분야의 세계 1위인 노벨리스는 지난 2년간 약 5억 달러를 투자하여 그룹의 재활용 생산 능력을 2015년까지 210만 톤으로 2배 확대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알루미늄을 재활용할 경우 1차 알루미늄을 생산하는 방식과 비교해 에너지를 95퍼센트 절약할 수 있으며 온실가스 (GHG) 배출량을 95퍼센트 감축할 수 있다.

노벨리스 소개

노벨리스는 알루미늄 압연 제품 부문을 선도하는 글로벌 기업이며 세계 최대의 알루미늄 재활용 업체이다. 9개국에 11,000여 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2013년 회계연도에는 매출 98억 달러를 기록했다. 노벨리스는 북미, 유럽, 아시아, 남미의 자동차, 수송, 포장, 건설, 산업재, 소비자 전자제품 시장에 고급 알루미늄 판재와 포일 제품을 공급한다. 노벨리스는 인도 뭄바이에 본사를 둔 다국적 대기업인 아디트야 비를라 그룹(Aditya Birla Group)의 일원이다. 회사 홈페이지(www.novelis.com)와 트위터(twitter.com/Novelis)를 통해 보다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레드해어 브루잉 컴퍼니 (Red Hare Brewing Company) 소개

레드 해어 브루잉 컴퍼니는 조지아 주 마리에타에 소재한 독립 마이크로브루어리 업체다. 레드 해어는 2011년 8월부터 조지아 주 전역을 대상으로 크래프트 맥주를 판매하기 시작했으며 현재는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와 테네시 주에도 제품을 공급하고 있다. 레드 해어는 조지아 주에서는 최초로 크래프트 맥주를 캔에 주입하여 판매하기 시작했다. 보다 자세한 정보는 회사 홈페이지(redharebrewing.com)에서 얻을 수 있다.

추정적 진술 (Forward-Looking Statements)

노벨리스의 의도, 기대, 혹은 예측을 기술하는 본 보도자료 상의 정보는 증권법에 의거한 추정적 진술에 해당될 수 있다. 본 보도자료 내 추정적 진술에는 레드 해어 브루잉 컴퍼니가 세계 최초로 *에버캔*™을 상용화 할 것이라는 진술도 포함된다. 이에 대해 노벨리스는 추정적 진술의 위험요소들과 불확실성에 대한 주의를 요구한다. 노벨리스는 새로운 정보, 미래의 사건 등 사유를 불문하고 추정 정보를 업데이트할 의도가 없으며 그에 따른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주요 위험 요인들은 노벨리스가 제출한 회계연도 기준 2013년 3월 31일 마감된 연례 보고서 양식10-K내 ‘위험 요인’ 섹션에 기술되어 있다.